

사회복지 주간 동향(24.2.19.~2.23.)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이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은 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달 31일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힘
- 박미숙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읍·면·동 협의체 이해와 위원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육에 나선 이번 행사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위원 8명이 참여
- 이구용 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교육을 계기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 언제나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방안, 특화사업 추진 등을 논의하며 연간계획을 수립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이동읍 맞춤형복지팀)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특례시 곳곳서 설 맞아 나눔·기탁

< 취약계층에 명절 음식·선물 꾸러미 전달... 1억원 넘는 기탁도 >



※모현읍 맞춤형복지팀 활동사진

- * 설을 맞아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이웃을 돕는 기부와 나눔 행사가 이어짐,
 - 용인특례시는 8일 수목장지를 운영하는 처인구 양지면 용인로템파크(회장 김운배)가 양지면 취약계층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억2000만원을 기탁, 용인로템파크는 지난 2021년부터 양지면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꾸준히 성금을 기부
 - 의약품 제조사인 처인구 유방동 한림제약(주)(부회장 김정진)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2000만원을, 축전기를 제조하는 삼화콘덴서공업(주)(대표 박진)은 1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탁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시 기업들이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말함

- 지난 6일 처인구 김량장동 처인장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처인 장학회(이사장 황선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500만원 상당의 냉동식품 1000개를 기탁, 기탁식에는 황선인 처인장학회장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 기부한 물품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 생활시설 등 12개 시설에 지원
-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배)는 같은 날 어려운 이웃 20가구에 농촌사랑상품권 15만원씩을 전달
- 이동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양순자)는 같은 날 홀로 어르신 27명에게 쌀과 김 선물 세트(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쌀과 김은 봉사활동을 하며 모은 기금으로 마련함
- 지난 7일에는 용인 중앙라이온스클럽에서 500만원 상당의 돼지갈비 50팩을 이동읍에 기탁, 읍은 이날 기탁된 물품을 저소득 50가구에 전달
- 남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경선)와 적십자 처인봉사회(회장 서강애)는 같은 날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30가구에 불고기, 떡국, 쌀, 만두, 달걀 등 명절 음식을 전달,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마련함
- 남사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이경애)는 지난 1일 관내 홀로 어르신 80가구에 김과 떡, 고기, 생활용품 등 선물 세트를 전달, 이번 행사는 읍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김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함
-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길자 부위원장(천일주유소 대표)은 지난 7일 난방유 400리터를 면에 기탁
-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지난 6일 저소득 가정을 위해 떡국떡, 사골국, 만두, 밀반찬(270만원 상당)을 만들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45가구에 전달하는 음식 나누기 행사를 열음
- 역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저소득 취약계층 13가구에 전복죽, 영양달걀, 김부각 등으로 구성된 부식꾸러미를 전달
- 역북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안순월)는 지난 5일 130만원 상당의 떡국과 사골국, 만두, 김 등 물품을 등에 기탁하고 경로당 10곳과 어려운 가정 50곳에 전달
- 대한적십자 역삼봉사회(회장 원유철)는 8일 후원금(250만원)으로 마련한 설맞이 음식꾸러미(떡국떡, 사골국, 홍삼)를 역북동, 삼가동에 거주하는 홀로 어르신 38가구에 전달
- 유림동에는 지난 5일 용인시민 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노대복)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월 30만원)을 전달, 성금은 저소득층 15가구에 매월 2만원씩 지원
- 기흥구에는 지난 6일 기흥테니스클럽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20kg) 30포와 라면 30상자를 전달, 기탁 물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
- 수원영은교회 마을공동체 봉사동아리 ‘영덕동마을쟁이(대표 이사무엘 목사)’는 지난 3일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70가구를 위한 210만원 상당의 설 떡국 재료와 과일을 기흥구 영덕1동에 기탁, 기탁받은 음식은 대상 가정에 지원

- 구갈동에는 지난 7일 세양조경(주)(대표 박상원)이 저소득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 기탁받은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
- 구갈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심영수)는 지난 5일 저소득 홀로 어르신 50가구를 위한 떡국(100만원 상당, 떡국 떡 75Kg과 사골육수 250팩)을 전달
- 상갈동에는 같은 날 취약계층의 안정과 자립,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더함깨새희망(이사장 문진환)이 백미(10kg) 50포와 김치(1.5kg) 200상자 등 물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함, 기부 물품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총 100가구에 전달
-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명옥)는 지난 6일 홀로 어르신 20가구를 방문해 떡국떡과 사골육수, 생필품 선물세트를 지원, 같은 날 상갈소망교회(담임목사 고강은)에서는 돼지갈비 15상자, 백미 10포, 김치 5상자 등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라동에 기탁, 지난 2일에는 보라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은숙)가 조미김 20상자를 보라동에 기탁
-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권영지)는 지난달 30일 어려운 이웃 30가구에 떡국, 모듬전 등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명절맞이 한상차림을 전달
- 구성동에는 지난 5일 하수 처리업을 하는 기흥구 환경기업인 정하엔텍주식회사(대표 전승만)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
- 마북동에는 지난 6일 현대모비스(주) 용인마북기술연구소가 취약계층을 돕는데 써달라며 150만원을 기탁함, 성금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등 취약계층 경량 패딩 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
- 동백2동은 지난 5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사정이 어려운 중·고생 7명에 방한복(210만원 상당)을 전달
- 충북 소재 농업회사법인(주)범아식품(대표 민경진)은 취약계층에 전해 달라며 지난 8일 라면 50상자를 동백3동에 기탁했다. 기탁받은 라면은 경로당 9곳과 저소득 가정 40가구에 전달
-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껍근배)는 지난 6일 저소득 가정 20가구에 떡국떡과 고기를 지원
- 동백3동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김장옥)는 지난 5일 2024년 저소득층 초·중·고 입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금 150만원을 기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성금으로 올해 초·중·고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12명에게 에스마켓 동백점에서 신발을 구입 할 수 있는 쿠폰(10만원 권)을 지급
- 보정동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가 지난 5일 삼푸, 치약, 세탁세제 등 생필품이 담긴 25상자(100만원 상당)를 기탁, 물품은 취약계층 25명에 전달
- 수지구는 지난 2일 북한이탈주민 9가구와 다문화가정 35가구, 홀로 어르신 31가구 등 취약계층 75가구에 2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원하는 ‘온정은 나누고, 그리움은 달래고’ 사업을 진행
-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말선)는 지난 6일 저소득층 20가구를 방문해 한우 불고기와 삼겹살, 다짐육, 떡국떡 등이 담긴 선물 세트 전달

- 풍덕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례)는 같은 날 홀로 어르신 14가구에 떡국떡, 김 등 명절 음식을 전함
-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운정)는 같은 날 ㈜더블유스타일동천과 '행복한 동행' 베이커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한 동행 사업은 복지자원 발굴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주 1회 베이커리를 지원
-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운정)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경로당 18곳을 방문해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기탁한 음료수, 주방세제, 치약, 샴푸 등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
- 죽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의동)는 지난 7일 명절 밥상 지원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 20가구에 탕과 국, 나물, 전 등을 전달
- 상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경원)는 같은 날 복지 취약계층 20가구에 명절 선물 세트를 지원
- 성북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김수남)는 같은 날 떡국떡, 참기름, 들기름, 통깨 등 나눔장터 물품 판매 수익금으로 선물 세트(참기름·들기름, 22만원 상당) 10개를 마련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복지정책과 나눔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돕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 서민금융 이용자 26만 명에 고용지원
취업 성공 시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

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돕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서민금융 이용자 26만 명에 고용지원
취업 성공 시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이용 중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
-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됨
-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24.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됨

2.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그리고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

- 현재는 금융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 없음
 - *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 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음
 - 현재는 102개 고용복지+센터 중 7개 센터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하여 센터 방문시 한 번에 금융과 고용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
3.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짐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뿐만 아니라 연계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
 -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도 안내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하며,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
 -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함
 - 채무조정 이용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사업 이용대상에 旣 포함되어 있음
4.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함

- 먼저,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
-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 방안]
 - 햇살론 유스 : 보증료 0.5%p ↓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 보증료 0.1%p ↓
- 또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하여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 외모, 장애 등에 대한 편견 방지 및 타인에 대한 존중 인식 함양 >

- *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화) 삼성복지재단에서 연구·개발한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어린이집에 배포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
 - 삼성복지재단은 1989년에 설립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70여 개의 삼성 어린이집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
 - 이번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 배포는 삼성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확산에 동참하며 이루어지게 됨
- *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외모, 장애 등에 대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인식·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보육교사의 다양성 존중 관점을 정립하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교육 과정과 유아들이 나와 다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있음, 두 교육과정 모두 ‘존중·소통·공감·조절·배려·용기’를 핵심 개념으로 각 개념을 이해하고 교사와 영유아가 일상과 어린이집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
 - 또한,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일상생활에서 자녀 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12개)도 함께 제공, 영상자료는 ‘다양성 존중 교육 유튜브’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

※ 보도자료 참조(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 다양한 놀이 사례 확산으로 영유아 행복한 성장 지원

< 영아놀이, 문해놀이, 디지털놀이, 3종 자료집 배포 >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월 8일(목) ‘배움을 놀이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영아놀이, 문해놀이, 디지털 놀이 총 3종의 분야별 놀이를 담은 자료집을 배포
 - 영아놀이는 교사가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영아의 놀이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로 구성
 - (사례 1 남남아이스크림) 반복을 즐기는 영아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아이스크림 놀잇감을 충분히 비치하며 영유아가 놀이를 지속하도록 지원 방법 안내
 - 문해놀이는 영유아가 발달과정에서 보여주는 읽기 및 쓰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담음
 - (사례 2 끝말잇기의 가시화) 말로 시작된 끝말잇기를 교사가 메모지를 통해 쓰기를 유도하고 문해력 향상을 돕는 놀이로 확장하는 방법 안내
 - 디지털놀이는 유아기부터 디지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담음
 - (사례 3 아쿠아리움 놀이) 수족관 견학 이후 태블릿을 이용해 바다생물들의 정보를 찾아보고, 증강현실 속 바다생물 모습을 탐색하는 등 디지털 매체 활용 방법 안내
- * 해당 자료집은 교사들이 다양한 놀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약 5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특히 놀이 과정은 사례마다 정보무늬(QR코드)로 연결되어 영상자료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따라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본 자료집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발간물>기타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중순 전국 어린이집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

※ 보도자료 참조(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고독사 예방’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의제 발굴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목) 10시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연구자, 지자체 고독사 예방 업무 담당자, 관련 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고독사 예방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함
 - 간담회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하고,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에서도 특색 있는 지역사업 추진 현황 설명, 이어서 각계 전문가들이 고독사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국민의 존엄한 죽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붙임

고독사 예방 전문가 간담회 개요

-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4.2.15(목) 10:00~12:00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
 - (참석자) 총 13인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장
지자체	김미경(서울시 관악구 희망복지팀장)
공공기관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수진(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 고숙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은하(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장), 정수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장)
학계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은우(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장), 이혜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기타	조미형(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연구위원), 김새별(바이오해저도 특수청소 대표)

- (논의사항) ¹⁾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현황, ²⁾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사업 현황, ³⁾사회적 고립 예방 의제 발굴을 위한 종합토론

* 회의순서

시 간		논의 내용
10:00~10:05	5'	■ 인사 말씀
10:05~10:15	10'	■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현황
10:15~10:35	20'	■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사업 현황
10:35~11:55	80'	■ 종합토론
11:55~12:00	5'	■ 마무리 말씀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5 중앙정부 복지현안

신설 사회보장제도 추진상황 현장점검

< 대광역시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 신설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2월 16일(금) 대전광역시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2023년 2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무료급식 비대상 어르신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사업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협의 완료
- * 한편, 노인복지관 방문에 앞서, 대전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시에서 중점 추진하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보건복지부는 협의 요청된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협의 기준인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참고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저소득 및 결식 우려 어르신의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을 통한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노인 건강증진
 - (지원대상)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무료급식 비대상자 중 중위 소득 150% 이하자
 - (지원내용) 급식비 4,000원 중 2,000원 지원(50% 자부담)
 - (소요예산) 연 440백만 원(시비 100%)
 - 추진 경과
 - (추진기간) '24. 2. 1. ~ 2. 14. / 경로식당 운영일 8일(1일 평균)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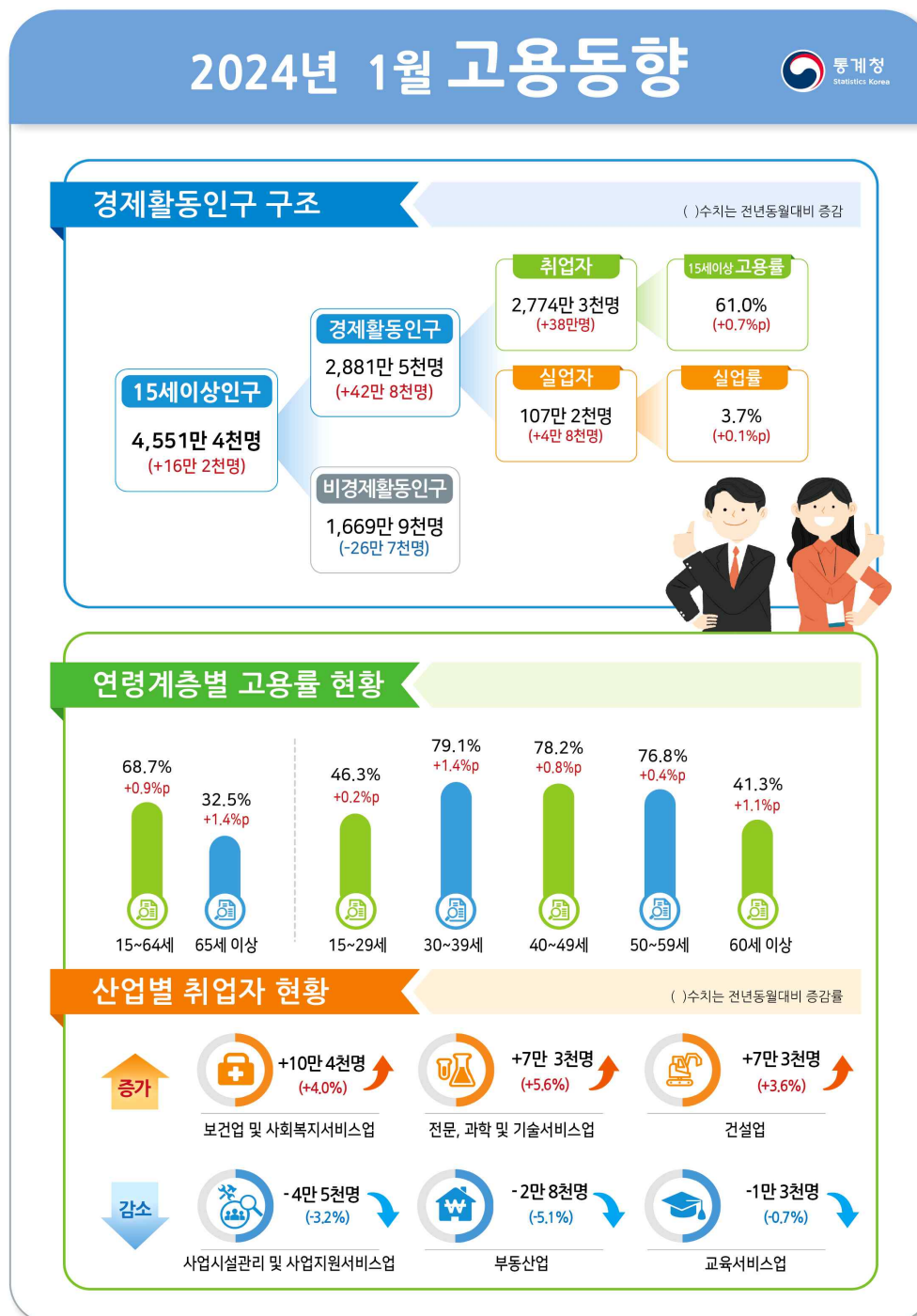
구 분	계	동구(9)	중구(6)	서구(3)	유성구(3)	대덕구(4)
전체 이용자	3,054	1,215	734	236	319	550
무료급식 대상자	2,182	999	481	179	139	384
일반 어르신	872	216	253	57	180	166

※ 보도자료 참조(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4년 1월 및 고용동향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